

소절구조 유형 및 분석

양 용 준

(제주대학교)

Yang, Yong-Jun. 2004. The Type & Analysis of Small Clause Structur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2), 115-14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thorough research on diverse analyses of the small clauses and to study the proper clausal categories. First, I'll survey the concepts and the types of the clauses as well as small clause. Chomsky (1981) defines a clause as follows: $S' \rightarrow \text{COMP } S$, $S \rightarrow \text{NP INFL VP}$. He says the small clause is a kind of clause, but it does not have INFL and copular. Stowell(1981) suggests the following X-bar schemata, $X'' \rightarrow \text{SPEC } X'$, $X' \rightarrow X'(X''^*)$. There are two types of small clauses. One is a complement small clause and the other is an adjunct small clause. The complement small clause is subcategorized and isn't thematically independent, but the adjunct small clause is not subcategorized and is thematically independent. The analyses of small clause are divided into constitutional analyses and non-constitutional analyses. Constitutional analyses for small clauses regard the small clause as one constituent. For the constitutional analyses ; Chomsky(1981) presents S category, Kitagawa(1985) presents S' category, Hornstein & Lightfoot(1984, 1987) suggests INFL' category analysis. On the other hand, for non-constitutional analyses, Williams(1980, 1983) & Rothstein(1983) suggest namely the subject-predicate theory. The small clause is not simple as the traditional grammar in nowadays' theory. Therefore, we must study and analyze the small clause as well as the other clause completely.

주제어(Key Words): 소절(small clause), 구성성분적 분석(constitutional analysis), 비구성성분적 분석(non-constitutional analysis), 보문소절(complement small clause), 부가소절(adjunct small clause)

1. 서론

소절에 관한 논의는 영어인 경우에 전통문법에서는 목적어와 목적보어로 그 이후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간에 구성성분을 형성한다는

구성성분적 분석이론과 구성성분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비구성성분적 분석 이론들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소절의 통사적 범주를 정하는데 학자들마다 다른 이론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Curme(1931)에서부터 오늘날 Chomsky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통문법 학자들에게서는 기본적인 문법형식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¹⁾

그러므로 본 연구가 전통문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소절이라는 용어를 명쾌하게 그리고 소절의 유형과 분석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비롯된 소절의 정의에 따라 여러 이론들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맞는 통사적 범주를 찾아내는 것과 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소절에 대한 이론적 배경

영어에서 소절분석은 전통적으로 Curme(1931)가 ‘소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소절에 해당하는 구조를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결합으로 보고, 이 중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주어구실을 하는 것으로 목적보어에 해당하는 것을 술어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적으로 보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어와 술어의 관계라는 것은 인정이 되나 통사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들은 각기 다른 구성성분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Jespersen(1969)은 소절을 ‘Dependent Nexus’의 일종으로 보고 다음과 예문과 같이 소절을 분석하고 있다.

- (1) a. They consider John honest.
- b. They consider John honest. SVO(S₂ P)

그는 (1a)의 예문을 (1b)와 같이 분석하면서 소절을 설명하고 있다. (1b)

1)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설명은 아직도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사항을 보면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이야기 하지만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구분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소절(small clau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의 분석에 의하면 소절 전체를 동사(V)의 목적어(O)로 보고 그 목적어는 제2주어(S₂)와 술어(P)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소절 전체를 하나의 구성요소, 특히 동사의 보문구조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Chomsky(1981)와 같은 입장이다.

Chomsky(1981)는 절의 구조를 NP, INFL, VP로 보고 있는데, 그의 견해를 고수해서 보면 INFL에 해당하는 *to*나 *tense*가 없는 소절은 절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동사 'consider'의 하위범주구분은 (2)와 같으므로 어휘목록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3)의 투사원리에 따라 'consider'가 일관된 보문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절 보문(*clause complement*)으로 보아야 한다.

(2) consider, [+ __ S']

(3) Projection Principle

'모든 통사구조(D-structure, S-structure, LF, PF등)는 어휘부의 통사정보에서 투사되어야 한다.'

Chomsky(1981)는 소절을 INFL과 *copular*가 없는 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1a)의 예문에서 'John'이 'honest'의 주어역할을 하므로 'John'을 주어인 SPEC으로 보고 'John honest'가 'honest'의 최대투사라고 본다면 (1a)의 소절은 절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Chomsky의 절 개념을 기반으로 Chomsky(1981)는 소절이 'S'-탈락'이 이루어진 S범주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Kitagawa(1985)는 'S'-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S'범주로 소절을 분석하고 Hornstein & Lightfoot(1984,1987)는 I범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Stowell은 '절은 SPEC이 주어진 모든 범주의 최대투사이다.'라고 규정했고 소절의 구조도 이 규정에 일치하므로 그의 X-bar이론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는 X-bar식형으로 나타내어 절의 정의에 맞는 구조이면 모두 절이라고 한 후 [+/- Tense]라는 자질을 사용하여 시제 절이나 *to*-부정사는 [+Tense]를, 소절은 [-Tense]를 가진다고 하면서 소절을 시제절이나 부정사와 구별하여 소절을 '[-Tense] clause'라고 주장한다.

Stowell(1983)은 X'-식형에 따른 모든 구 범주가 모든 주어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전 범주적 개념'을 도입하여 그들을 지정어 위치에

두었지만, Chomsky(1986)는 술어구, X'범주의 소절 주어는 최대투사의 지정어가 아니라 부가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소절에 대해서 각 이론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어 소절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3. 절과 소절의 구조와 유형

영어에서 절이란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는 구조화된 연쇄(structured string)'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소절은 '주어나 술어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굴절접사나 서법동사 또는 불변화사 to를 포함하지 않는 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절의 구조와 유형

절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보았고 현재 학교 문법에서 보면 'clause'라 하여 주어와 술어를 갖고 있는 문장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런 절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통사적 분류로 한정절과 비한정절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정형절, 예외절, 소절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절의 성분구조는 Emonds(1976)와 Soames & Perlmutter(197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하여 S안에 C와 NP가 자매로 생성되는 것이다.

$$(4) S \rightarrow C NP M VP$$

Bresnan(1970)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5) (i) S' \rightarrow C S$$

$$(ii) S \rightarrow NP M VP$$

일반적으로 절은 주어와 술어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수의적 요소인 시제와 일치형태소의 포함여부에 따라 한정절과 비한정절로 구분이 되는데 Radford(1988)의 정의에 의하면 한정절은 시제와 일치형태소에 의해 굴절

되는 한정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일컫고, 비한정절은 비시제적, 비일치적 동사를 포함하는 절, 다시 말해서 동사가 없는 절이나 시제나 일치형태소에 의해 굴절되지 않는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비한정절은 부정사형, 동명사형, 분사형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시제나 일치에 대해서 굴절하지 않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Radford(1988)가 제안하는 한정적인지 비한정적인지를 구분하는 검증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의 주어에 'you'에서 'John'과 같은 3인칭 단수 주어로 바꾸어, 동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시제의 -(e)s 굴절을 첨가하게 되는지 볼 수 있다.

- (6) a. I know [that John hates/*hate Syntax].
- b. I've never known [him hate/*hates anything as much as Syntax].

둘째, 해당 동사형이 외현적 과거시제 굴절 -(e)d를 가지는 과거시제 동사형으로 대치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 (7) a. I knew [that John hated/*hate Syntax].
- b. I'd never known [him hate/*hated anything as much as Syntax].

셋째, 서법 조동사의 특이한 형태론적 속성, 즉 그들이 비한정형을 본래 갖고 있지 않아서, 양상 조동사를 가질 수 있는 절은 어느 것이나 한정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절은 모두 비한정적이다.

- (8) a. I know [that you will/might/could/should hate Syntax].
- b. I've never known [you will/might/could/should hate anything as much as Syntax].

다음 (9)에 내포된 절은 시제와 일치 형태소를 포함하지만 (10)과 (11)에서 보듯이 주절동사의 어휘적 특성 때문에 술어동사가 굴절되지 않는 한정절로 나타난다.

- (9) a. I demand that John leave Jeju tomorrow.
- b. The committee may insist that John resign.

- (10) a. I demand that John leave/*leaves Jeju tomorrow.
- b. The committee may insist that John resign/*resigns.
- (11) a. I demanded that John leave/*left Jeju the following day.
- b. The committee might insist that John resign/*resigned.

(9)의 내포절은 술어동사의 핵 이동이나 시제와 일치 형태소의 접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Radford(1988)의 한정절/비한정절의 정의에 따르면 (9)의 내포절은 시제와 일치 형태소가 내재적으로 나타나는 한정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와 술어에 관련하여 한정절과 비한정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절은 반드시 어휘적 NP주어를 포함해야 한다.

- (12) a. I consider that *(John) is proud of himself.
- b. I believe that *(John) can win the game.

둘째, 한정절의 주어는 반드시 주격이 할당되지만, 비한정절은 시제와 일치 형태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격 주어나 PRO 주어를 포함하며, 즉 주격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를 포함하는 절이 비한정절이라는 것이다.

- (13) a. [_{CP} For [_{IP} him to win]] would be a big surprise.
- b. [_{CP} e [_{IP} PRO to win]] would be a big surprise.
- c. * [_{CP} e [_{IP} him to win]] would be a big surprise.

셋째, 비한정절의 술어는 한정절처럼 VP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AP, NP, PP등의 모든 범주가 된다.

- (14) a. I consider [John [_{AP} honest]].
- b. You'll soon find [John [_{NP} a genius at chemistry]].
- c. They expect [John [_{PP} out of the team]].

넷째, 내포절의 D-구조를 보면 (10)과 같은 한정절에서는 I범주에 [+TNS, +AGR] 자질이 표시되었는데, 비한정절에서는 I범주에 [-TNS,

-AGR] 자질이 표시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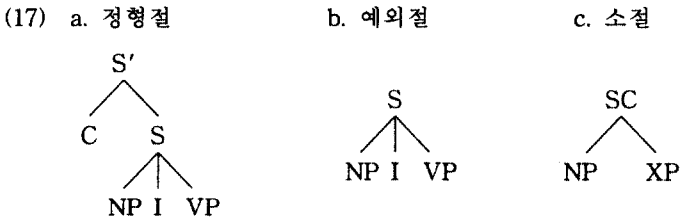
- (15) a. We would prefer [_{CP} for [_{IP} John [_{I'} [_I to] [_{VP} resolve the matter amicably]]].
- b. I've never known [_{IP} John [_{I'} [_I to] [_{VP} be so rude to anyone]]].
- c. John tried [_{CP} [_C e] [_{IP} PRO [_{I'} [_I to] [_{VP} win the prize]]]].

다음은 정형절(ordinary clause)과 예외절(exceptional clause), 그리고 소절(small claus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16) a. John persuaded [Bill to examine Mary].
- b. John believes [Bill to be honest].
- c. John thinks [Bill proud of himself].

위의 예문에서 (16a)의 *Bill to examine Mary*는 정형절이고, (16b)의 *Bill to be honest*는 예외절, (16c)의 *Bill proud of himself*는 소절이다.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정형절은 I와 C를 모두 가지며, 예외절은 I는 가지나 C는 가지지 못하고, 소절은 I도 C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외절이나 소절은 분포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어서 예외절은 전형적으로 어떤 특정한 동사의 보어로서만 나타나고, 소절은 동사와 전치사의 어떤 하위 집합의 보어로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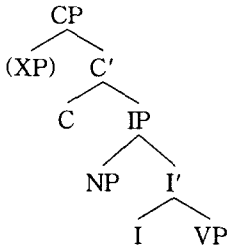
이것들은 다음 (17a~c)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Radford: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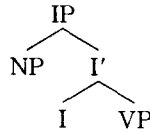
2) Chomsky(1986b)에 따르면 시제소나 일치소는 한정절의 서법동사와 같이 INFL범주에 기저 생성된다.

정형절, 예외절의 구조는 내심구조제약과 이분지(binary branching)가설을 채택하는 핵계층이론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8) a. 정형절



b. 예외절



다시 말해, (16a)는 (19)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19) John persuaded Bill [_{CP} C PRO to examine Mary].

이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 (20a)처럼 'Bill'이 'to examine Mary'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못하고 (20b)처럼 양보절의 전치(preposing)에서 보다시피 오히려 동사인 'persuade'와 어울리는 것 같으며 정형절로 환원해 보면 (20c)처럼 2항 타동사(ditransitive verb) 즉, 3자리 술어(three place predicate)임을 알 수 있다. 'allow', 'force', 'advice'등의 동사는 'persuade'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다.

(20) a. John persuaded Bill firmly / himself to examine Mary.

b. Persuade Mary through John may to resign,

I can't imagine I'll persuade her to leave town.

c. John persuaded Mary that she should resign.

그에 반해서 (21b)의 'Bill'은 'to be honest'의 의미상 주어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1) a. *John believes Bill firmly / himself to be honest.

b. *Believe Bill through John may to be honest, I can't imagine I'll

believe that Bill is honest.

c. John believes that Bill is honest.

(21a)처럼 예외절의 주어 '*Bill*'과 술어 '*to be honest*'사이에는 '*firmly*'와 같은 부가어나 강조의 재귀사가 개입될 수 없고, (21b)처럼 양보절의 전치도 불가능하며 (21c)에서처럼 정형절로 환원해 보면 일항 타동사(mono transitive verb) 즉, 2항 술어(two place predicate)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왜 정형절 CP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즉 IP)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 (22) a. *I consider for my student (to be) conscientious.
 b. They reported him to be in great pain.
 c. She was never been known [to lie].
 d. I've never known [myself to lie].

이들테면 이 구성은 (22a)처럼 외현적인 보문소절에 의해 도입될 수 없고 (22b)처럼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동사에게서 격을 받는다. 이는 동사와 보문의 주어 사이에 장벽이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2c)처럼 보문의 주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이동하며 (22d)처럼 재귀어가 보문의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문의 주어는 상위동사의 지배를 받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예외절은 CP가 아니다.

3.2 소절의 유형

소절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전통문법학자인 Curme(1931)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소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They consider [John honest]."라는 문장에서 소절에 해당하는 [*John honest*] 구조를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결합으로 보고, 이 둘 중 첫 번째 것은 주어 구실을 두 번째 것은 술어구실을 한다고 하여 논리적으로는 절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때 술어 구실을 하는 목적보어 '*honest*'는 주어 구실을 하는 목적어 '*John*'과 연결사의 도움없이 연결된다고 하여 이처럼 논리적으로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를 이루지만 통사적으로는 이들이 각기 독립적인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Jespersen(1969)은 소절을 'Dependent Nexus'의 일종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한다.

(23) They consider John honest. SVO (S₂P)

(23)에 의하면 소절전체를 동사(V)의 목적어(O)로 보고 그 목적어는 제 2주어(S₂)와 술어(P)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소절전체를 하나의 구성요소, 특히 동사의 보문구조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Chomsky(1981)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Chomsky는 소절을 INFL과 couplar가 없는 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개념의 소절은 두 경우로 나뉘는데 주절동사의 보문어구(complement)의 소절을 보문소절(complement small clause)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부가어구(adjunct)역할을 하는 소절을 부가소절(adjunct small clause)로 구분한다. Radford(1988)는 보문어구와 부가어구의 구분을 핵과의 관계로 해서, 보어는 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부가어는 덜 밀접하므로 전치도 쉽고 수의적 성분이며, 표제에서 보어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하고, 양동휘(1989)는 Chomsky(1981)와 Stowell(1981, 1983)의 이론에 입각하여 그 통사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먼저, 보문 소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보문소절은 문장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는 보충어구로 쓰인 소절을 말한다. Chomsky(1981)는 소절이 최대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문소절의 경우 그 주어자리가 주절동사에 의해 지배되고 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자리에 PRO대신에 어휘적 명사가 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 (24) a. John considers [s that Bill is proud of himself].
 b. John considers [s Bill to be proud of himself].
 c. John considers [a Bill proud of himself].

(24c)의 경우 a를 S로 봄으로써 'Bill'이 주절동사 'consider'에 의해 지배되고, 격이 부여되므로 Chomsky(1981)의 격 제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4c)의 a를 S로 본다면 모든 보문소절을 S로 보아야 할텐데 모든 종류의 소절을 S라는 한가지 범주로 일괄 처리 할 수 없다. 왜냐하

면 동사가 목적절로서 소절을 택할 때는 선택제약이 나타난다. 다음 (25)에서 보는 것처럼 'consider'의 목적절로서의 소절은 술어가 형용사인 소절을 'expect'는 술어가 전치사인 소절을 'fear'는 술어가 과거분사인 소절을 택한다.

- (25) a. I {consider/*expect/*feared} [a John very stupid].
- b. I {*consider/expect/*feared} [a John off the ship].
- c. I [*consider/*expect/feared} [a John killed by the enemy].

Stowell(1981)이 모든 소절을 S범주로만 분석하면 (25)에 나타난 선택제약을 규명하기 위해 소절 범주 자체를 여러 가지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Stowell(1981)은 (26)과 같은 X-bar기본형을 제안한다.

- (26) a. $X'' \rightarrow (\text{SPEC}) X'$
- b. $X' \rightarrow X(Y'')$

(26)에서 X와 Y는 범주변항(category variable)이고 N, V, A, P, I 등의 다섯 가지 범주를 대표한다. SPEC은 Specifier의 준말로써 수의적 범주로 X'앞에서 술부에 대해 주어가 되고, X가 N일 때는 X'앞에 나타난 SPEC이 관사 같은 지시어가 될 수도 있다. (26b)의 X와 Y''*는 술어(predicate)와 보충어구(complements)를 나타낸다. (26a)의 경우에 SPEC은 수의적 범주이면서 X'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서 (27)처럼 나타낼 수 있다.

- (27) $X'' \rightarrow (\text{SPEC}) X' (\text{SPEC})$

수식어구로서의 SPEC을 ADJ로 구별하여 표기한다면 (28)과 같이 된다.

- (28) $X'' \rightarrow (\text{SPEC}) X' (\text{ADJ})$

모든 최대범주는 (28)처럼 주어 SPEC와 술부 X'와 수식어구 ADJ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술부 X'는 술어 X와 보충어구 Y''*로 구성되어 있다. (Stowell(1981)처럼 모든 소절을 최대투사범주로 분석하면 (25)에서 소절의 주어인 'John'이 격을 받을 수 없어 격 제약에 걸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Stowell(1981)의 X-bar이론에 의한 보문소절의 분석은 종래의 AS지배³⁾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Stowell(1983)은 새로운 지배 정의를 제안하였다.

(29) Stowell(1983)의 지배 정의

α governs β in ν , where

(i) ν is an X-bar projection of α

(ii) There is no δ , such that $\delta \neq \alpha$ and δ governs β

(iii) ν is [... α ... β ...] for head-initial languages but [... β ... α ...] for head-final languages.

위의 정의에서 (i)은 α 가 어휘범주이고 α 의 지배 범위는 α 의 최대범주가 됨을 명시하고, (ii)는 한 지배자(governor)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성분은 또 다른 지배자에 의해 이중으로 지배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iii)은 지배의 방향이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술어가 보충어구의 좌측에 오는 핵 말언어(head-initial language)는 지배가 우측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술어가 보충어구의 우측에 오는 핵 선행 언어(head-final language)는 지배가 좌측방향으로만 이루어짐을 명시한다. 이런 Stowell(1983)의 새로운 지배 정의에 따르면 보문소절에서 지배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다음으로, 부가소절을 살펴보자.

부가소절은 문장의 수식어구로 쓰인 소절이다. 부가소절에 해당하는 예문들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절대분사구문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소절의 주어자리에 PRO가 오는데 이 PRO가 주절주어에 의해 통제되느냐, 주절의 비주어에 의해 통제되느냐에 따라 각각 (30),(31)의 예문으로 나누어 그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Aoun-Sportiche(1981)의 성분통어 정의 :

α c-commands β iff

(i) α does not dominate β

(ii) The first maximal projection node dominating α dominates β

4) John left the room with [α Mary being angry at herself](양동휘, 1989)와 같은 문장을 소위 절대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being'의 'ing'가 INFL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부가소절의 주어자리에 PRO가 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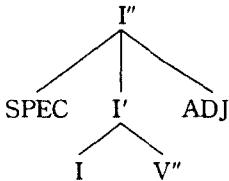
- (30) a. John left the room [_A angry at himself].
- b. John came home [_V singing a song].
- c. John came home [_P in a red shirt].
- d. John came home [_[+V] confused by her reaction].
- (31) a. John ate the meat [_A PRO[_A raw]].
- b. John rolled [_P the dough [_P PRO into a ball]].

(30)의 예문들은 모두 문장부사의 성격을 띤다. 부가소절의 주어에 대해서 Chomsky(1981)는 모든 부가소절은 보문소절과는 달리 S'와 같은 최대범주로 가정함으로써 부가소절의 주어자리는 AS지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6)의 식형에 따라 다음 (32)처럼 분석된 것을 보면 부가소절이 최대범주라고 할 수 없다.

- (32) a. consider : [+ ____ A]
- b. expect : [+ ____P]
- c. fear : [+ ____ +V]

Stowell(1983)은 모문소절과 부가소절은 내부구조는 같고, 다만 보문소절은 보충절의 역할을 하고 부가소절은 부가절의 역할을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Stowell(1983)의 기본식형에 따라 분석하면 (30)은 다음 (33)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가소절은 ADJ에 해당한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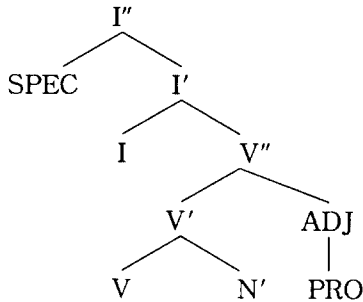
부가소절의 주어자리는 PRO가 나타나므로 지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Stowell(1983)의 새로운 지배개념을 따르면 지배되게 된다. 즉, (58)에서 소절은 COMP가 없으므로 (29 ii)에 위배되지 않고 I가 ADJ필의 부가소절 안으로 지배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 (34)와 같은 제약

을 두고 있다.

(34) ADJ is opaque to government.

지배제약조건 (34)를 받아들이면 부가소절으리 주어자리에 PRO가 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PRO는 주절주어 'John'에게 통제되고 통제자는 PRO를 성분통어(c-command)하고 있어서 국부적 통제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31)의 경우는 PRO가 비주어에 통제되고 있으므로 (33)의 구조로 분석하면 V'' 밑에 있는 목적어가 I'' 밑에 있는 부가소절의 주어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자가 PRO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35)에서 V''의 부가절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목적어뿐만 아니라 부가소절의 PRO를 성분통어하게 된다.

(35)



의미상으로 (30)의 부가소절이 문장부사의 성격을 띠다면 (31)의 부가소절은 동사구부사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3)에서는 I''의 부가구로서, (35)에서는 V''의 부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4. 소절의 통사적 범주와 분석

소절의 통사적 범주는 크게 소절을 한 구성성분을 이룬다고 분석하는 구성성분적 분석과 그렇지 않고 단지 주어-술어관계에 있다고 하는 술어이론으로 설명되는 비구성성분적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 구성성분적 분석

소절의 구성성분적 분석은 소절이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구성성분적 분석에는 Chomsky(1981)와 Rothstein(1983)의 S범주와 Kitagawa(1985)의 S'범주, Hornstein & Lightfoot(1987)의 I범주, Stowell(1981,1983)의 술어구 X'범주, Chomsky(1986)의 부가구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S범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어와 술어를 포함하는 모든 절의 주어 개념을 [NP, S]의 문법기능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S범주 즉, IP범주와 명사구만이 주어를 포함하고 있다. 소절의 범주 구분에 있어서 Chomsky(1981)는 특히 보문소절을 S'-탈락된 S범주로 분석하고 Kitagawa(1985)는 S'-탈락되지 않은 S'범주로 분석한다. Chomsky(1981)는 소절을 INFL과 계사가 없는 절 구조, 즉 INFL이 핵이 아닌 절로 정의하고 보문소절은 S, 부가소절은 S'범주로 분석하고 있다. Chomsky(1981)는 S범주를 생성하는 범주규칙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36) a. $S' \rightarrow \text{COMP S}$
 b. $S \rightarrow \text{NP INFL VP}$

여기서 S'범주는 S범주의 최대투사로 분석되므로 S범주는 최대투사가 되지 못한다. INFL은 주어 NP와 술어 VP의 자매범주로써 S범주에 직접 관할된다. Chomsky(1981)는 주어와 술어를 포함하는 모든 절의 주어 개념을 (36b)의 S범주규칙에 준하여 [NP, S]라는 문법기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음 (37)의 보문소절은 (38)의 D-구조에서 보듯이 S-범주의 최대투사인 S'범주로 분석된다.

- (37) a. I consider [John [_{AP} honest]].
 b. You'll soon find [Jon [_{NP} a genius at chemistry]].
 c. They expect [John [_{PP} out of the team]].
 (38) a. I consider [_{S'}[_S John [_{AP} honest]]].
 b. You'll soon find [_{S'}[_S John [_{NP} a genius at chemistry]]].
 c. They expect [_{S'}[_S John [_{PP} out of the team]]].

위의 예문의 S'범주는 INFL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더욱이 INFL은 (36)의 규칙에 의하여 공범주로 가정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36b)의 규칙에서 S범주는 핵계층이론에 따른 내심적 구조가 되지 못하므로 INFL공범주가 내심구조 제약에 의해 허가될 수 없다. 따라서 (37)의 보문소절을 (38)과 같이 INFL을 포함하지 않는 S'범주로 분석할 경우도 다른 S범주규칙, 즉 $S \rightarrow NP XP$ 규칙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38)처럼 'expect'의 어휘내항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어는 최대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투사범주규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절주어는 주절동사에 의해 격 표시되어야 하고 절 밖으로의 α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절 주어의 지배와 이동에 관한 절대상격인 S'범주를 제거하기 위해 (38)의 D-구조에 S'-탈락이라는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되므로 다음 (39)와 같은 예외적 규칙을 전제로 한 S범주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39) Small clauses are not maximal projections.(Chomsky:1981)

따라서 (37)의 보문소절은 (39)의 규정에 따라 D-구조에서 비최대투사인 S범주가 되는 것이다.

- (40) a. I consider [_S John [_{AP} honest]].
 b. You'll soon find [_S John [_{NP} a genius at chemistry]].
 c. They expect [_S John [_{PP} out of the team]].

보문소절에 대한 S범주분석은 (39)의 규정에 대한 예외성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범주규칙의 보어 최대투사제약 즉 핵계층이론의 수식어 최대투사제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갖는다. 그러나 Chomsky(1981)는 다음 예문 (41)의 보문소절을 S'-탈락된 S로 보며 부가소절은 S'로 본다.

- (41) a. John wanted [_S Bill dead].
 b. John left the room [_{S'} [_S PRO angry]].

(41a)는 'Bill'이 지배되기 위해서는 소절이 S'-탈락이 적용될 수 있지만 (41b)에서는 소절주어 PRO는 지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S'-탈락이 적

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부가소절은 S'로 남는다.

Kitagawa(1985)는 (37)의 보문소절을 (42)와 같은 범주규칙에 의해서 S'범주로 분석한다.

- (42) a. S' → COMP INFL"
- b. INFL" → NP INFL'
- c. INFL' → INFL XP

소절이 COMP 및 INFL을 포함하는 S'라는 그의 주장은 소절의 절로서의 자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42c)의 INFL범주에는 서법동사 뿐만 아니라 양상동사인 *be*와 *have*가 기저생성 되어 나타날 수 있다.⁵⁾ 또한 INFL범주는 공범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7)의 보문소절은 (43)와 같은 D-구조를 갖는다.

- (43) a. I consider [_{S'}[_{I'} John [_I e]_{[AP honest]]].}
- b. You'll soon find [_{S'}[_{I'} John [_I e]_{[NP a genius at chemistry]]].}
- c. They want [_{S'}[_{I'} John [_I e]_{[PP out of the team]]].}

그러나 Kitagawa(1985)는 (37)의 보문소절에서 주어와 절 밖으로 α -이동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Chomsky(1981)의 S범주분석과는 달리 (43)의 D-구조에 S'-탈락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근본적으로 α -이동을 제약하는 하위인접조건에서 영어의 경우에는 한계교점(bounding node)이 S'범주가 아니라 S 또는 NP범주가 된다는 Rizzi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Kitagawa(1985)는 (44a)의 S-구조에서 *who*의 α -이동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흔적이 포함된 연속체가 S 또는 NP 범주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 연속체가 S범주가 되든 또는 Np범주가 되든 간에 *who*의 이동은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연속체를 (44b)와 같이 S'범주로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Williams(1984)는 서법동사와 양상동사가 INFL내에 기저생성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S범주규칙은 S → NP INFL XP로 분석된다.

- (44) a. Who_i do you consider [_{S(NP)} _{t_i} a genius]?
 b. Who_i do you consider [_{S'} _{t_i} a genius]?

그러나 이런 분석은 (37)의 보문소절에서 주어가 주절동사에 의해 격을 할당받게 한다는 점과 주어가 NP-이동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37)의 보문소절에 대한 S'범주분석은 S'-탈락과 같은 예외적인 규칙을 가정하지 않는 한 지배에 대한 절대장벽인 S'범주가 존재하므로 주절동사에 의한 소절주어의 격 할당과 소절주어의 NP-이동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게 된다. 소절의 S분석은 소절주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S'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격 여과의 위배를 초래한다. 또한 S'범주분석은 (37)의 보문소절의 주어 위치에 PRO가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음은 I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Hornstein & Lightfoot(1984, 1987)는 소절의 범주를 INFL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 Hornstein & Lightfoot(1984)는 소절 분석에 있어 Chomsky(1981)의 PRO정리를 부정하면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 Hornstein & Lightfoot(1984)는 보문소절이든 부가소절이든 모든 소절을 INFL범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36)의 S범주규칙을 (45)와 같이 재분석함으로써 S범주를 INFL의 중간투사인 INFL'로 가정하고 S'범주를 INFL의 최대투사로 가정한다.

- (45) a. S' → COMP INFL'
 b. INFL' → NP INFL XP

INFL은 (45b)에서 보듯이 보어로 어떠한 범주든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보어범주에 몇 가지 제약이 부가된다. 먼저, INFL이 [+TNS]와 [-TNS]자질을 포함하면 보어로 VP범주를 취해야 하지만 [Null]자질을 포함하면 반드시 AP, NP, PP범주만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규정은 INFL공범주는 최대투사인 S'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6)의 규정에 따르면 (37)의 보문소절은 다음 (47)과 같이 분석된다.

(46) 'INFL°'뒤에는 동사구 외의 모든 최대투사가 올 수 있다. INFL°은 오직 CP가 없는 곳에만 나타난다. INFL°을 가지는 소절은 IP안에서만 나

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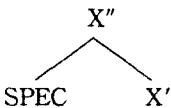
- (47) a. They consider [_{I'} John [_I e][_{AP} honest]].
- b. You'll soon find [_{I'} John [_I e] [_{NP} a genius at chemistry]].
- c. They expect [_{I'} John [_I e] [_{PP} out of the team]].

이렇게 INFL⁰을 설정하면, 논항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내심구조로 제약된 핵계층이론도 유지할 수 있다.

- (48) a. [_{CP}[_C e][_{IP} Mary might think that he will resign]]].
- b. He [_I e] not [_{VP} have finished].

(48a)처럼 보문소 C가 때로는 ∅이며 따라서 모든 정형절은 도식적 형식, [(XP) C IP]로 나타낼 수 있는 CP성분의 자격을 가지며 외현적인 보문소나 도치된 조동사에 의해, '채워질' 수도 있고 '공범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C성분을 포함한다. 또 (48b)처럼 굴절소 INFL이 ∅일 수 있다. 다음으로 술어구 X'범주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Stowell(1981)이 제시하는 절 구조는 다음 (18)과 같다.

(49)



X가 어떤 범주라도 SPEC을 주어로 가질 수 있고, 이런 경우 (49)는 절을 의미한다. 소절을 시제절이나 부정사절과 구분하여 쓰고 있다. 따라서 X에 어떤 어휘범주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절이 나오게 된다.

- (50) a. X = I : Tensed clause, to-infinitive
- b. X = N : NP Small Clause
- c. X = A : AP Small Clause
- d. X = V : VP Small Clause

e. X = P : PP Small Clause

여기에서 보면 X가 I가 아닌 경우는 모두 소절이며, 모두 주어롤 가진 최대투사이다. Stowell(1981, 1983)은 S와 명사구를 비롯한 모든 통사범주(syntactic category : S, NP, VP, AP, PP)가 구조적으로 주어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전 범주적 주어(subjects across category)'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51) a. John had his accident while [_S he was still sober].
 b. What does John regret?- [_{NP} His departure from Paris].
 c. John had his accident while [_{AP} *he/him still sober].
 d. What is he like? - [_{AP} (*he/him/his) very nice].
 e. What did John do? - [_{VP} (*he/him/his) go home].

(51a, b)의 S와 명사구와는 달리 (51c, d, e)의 형용사와 동사구는 주어롤 다 취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S와 명사구를 제외한 다른 범주가 주어롤 취하지 못한다면 주어의 위치는 범주 특수적(category specific)임을 각 범주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51c, d, e)가 형용사구, 동사구가 주어롤 갖지 못하는 것은 형용사구 및 동사구 내의 지정어(SPEC)에 위치한 형용사구가 격 여과를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Stowell(1981)의 제시하는 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2) a. 시제([+Tense] 혹은 AGR)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는 주격을 받는다.
 b. 동사(V)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는 목적격을 받는다.
 c. 전치사(P)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는 사격을 받는다.

위의 (52)의 격 이론(case theory)에 의하면 형용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등은 자신의 최대투사범주내의 주어위치에 나타난 명사구에 범주 내재적(category internal)으로 격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용사구, 동사구, 전치사구의 주어는 범주 외재적(category external)으로 격을 받아야 한다.

Stowell(1981, 1983)이 소절의 범주를 최대투사범주로 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Chomsky(1981)의 지배개념에 의하면 모든 최대투사는 지배의 장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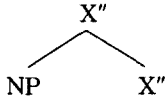
- (53) a. We consider [_S[_S the mayor to be honest]].
 b. We consider [_{AP} the mayor honest].

(53a)의 경우 부정사절 내의 주어 'the mayor'가 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S'-탈락규칙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으나 (53b)의 경우는 소절의 범주가 최대투사이므로 주절동사 'consider'에 의해 지배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절의 범주가 최대투사범주 삭제에 의해 A'가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the mayor'가 X'-식형의 주어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가구조를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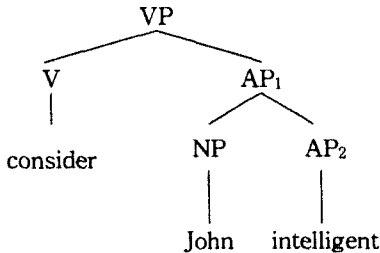
Chomsky(1986b)는 소절은 다음과 같은 도식적 형식으로 표현되는 기저 생성 부가구조라고 주장한다.

(54)



이런 분석은 술어와 전체소절이 모두 XP(=X'')라는 동일한 범주자질을 가진다. 이 분석은 Stowell이 주장하는 소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55)와 같이 보문소절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소절론에 토대를 두고, 소절의 술부는 최대투사범주이며 소절의 주어는 그 술부에 부가된 형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55) a. They consider [_{AP} John [_{AP} intelligent]].
 b.



(55)처럼 지정어가 둘인 경우를 Chomsky(1986)는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Chomsky(1986)는 기저생성된 부가구조(base generated adjunction structure)인 보문소절은 이동규칙에 의한 파생부가구조(derivational adjunction structure)와는 달리 어휘부에 어떤 형태로든 명시된다고 보고 있다. Chomsky(1986)의 소절분석은 Stowell(1986)과 같이 지배의 장벽을 제외하는 지배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Chomsky(1986)의 지배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6) α governs β iff
 a. α m-commands β and
 b. there is no barrier that dominates β and excludes α .⁶⁾

(56b)의 장벽개념은 (57)과 같은 의미역표시(θ -marking)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 (57) α directly θ -marks β iff
 a. $\alpha = X^0$ or X''
 b. $\beta = Y''$
 c. α and β are sisters

(57a)에서 핵 X는 여섯 개 범주(N, V, A, P, I, C) 모두를 지정한다. 따라서 S는 INFL의 최대투사범주(IP)이며 S'는 COMP의 최대투사범주(CP)이다. (57)의 의미역표시를 토대로 하면 S의 동사구가 S의 주어에게 의미역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절 내 술부가 최대투사범주로서 자매관계에 있는 소절 내 주어에게 의미역을 담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절내 의미역관계는 무리없게 설명이 된다.

4.2 비구성성분적 분석

비구성성분적 분석은 Williams(1983)의 분석이 유형을 따르도록 하겠다. 먼저 주술관계와 보문소절을 보도록 하자.

6) Chomsky(1986b)는 지배결속이론에서는 성분통어(c-command)가 지배이론에서 최대투사통어(m-command)가 원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msky와 Stowell과는 달리 Williams(1983)는 소절의 설정은 구조적 주어개념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잘못이라고 보고 주어란 어떤 범주에 직접 관할되는 요소 또는 그 범주의 지정어로 정의하지 않고 같이 최대투사인 술어의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이라는 비구조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58) '술어구 XP의 주어는 X의 최대투사 밖에 위치한 X의 유일한 논항이다.'

Stowell(1981, 1983)의 술어 핵의 최대투사범주인 'I consider [_{AP} [_{NP} John][_{A'} honest]]' 구조에서 'John'은 술어 핵 'honest'의 최대투사 AP범주에 의해 직접 관할되는 지정어로서 주어가 되나 (58)의 개념에 의하면 술어 핵 'honest'의 최대투사 AP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다.

Williams(1983)는 보문소절의 비구성성분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기저부의 S범주규칙에 (59)과 같은 VP-규정(VP-stipulation)을 부가한다.

(59) VP-stipulation

기저부의 S범주규칙에서 밑줄 친 위치에는 VP만이 나타날 수 있다.

S → NP

(59)의 규정은 VP가 아닌 범주술어 -AP, NP, PP 등-와 주술관계를 이루는 연속체는 S범주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S범주규칙에 대한 제약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I consider [_{AP} [_{NP} John][_{A'} honest]]'의 보문소절 술어는 VP가 아닌 AP범주이므로 S범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Williams(1983)는 (58)의 주어개념과 (59)의 규정을 근거로 (60)과 같이 분석한다.

(60) I [_{VP} consider [_{NP} John][_{AP} honest]].

그러나 (60)구조에서 'John'과 'honest'는 구성성분은 이루지 못하지만 주술관계는 형성한다. Williams(1980)는 그 주술관계규칙은 동일지표로 표시한다. 주어 NP와 술어 X간의 동일지표는 (61)과 같은 성분통어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61) 'NP와 X가 동일 지표하려면, NP는 X 또는 X에 결속되는 변항을 성분통어해야 한다.'

(61)에서 성분통어제약⁷⁾은 동일지표가 S-구조에 적용되어 도출된 통사표시 층위의 여파로 볼 수 있으며 그 통사표시 층위는 술어구조로 가정한다. 그 구조는 (6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2) [_S [_S [_{NP} I]_i [_{VP} consider [_{NP} John]_j [_{AP} honest]_j]_i]].

(62)에서 술어 VP는 주어 I에 의해 성분 통어되고 술어 AP는 주어 John에 의해 성분통어 되기 때문에 각각 그 주어와 동일지표 되어 주술관계가 형성된다.

보문소절과 부가소절은 다른 통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Williams(1983)는 보문소절과 부가소절을 같은 통사구조로 분석을 하고 있다. 다음의 예 (63)에서 보면,

- (63) a. How honest_i do you [consider [John [_{AP} t_i]]]?
 b. *How raw_i did John [eat [the meat]_i]_i]?

(63a)의 보문소절 술어는 주절 CP의 지정어 위치로 WH-이동 할 수 있지만 (63b)의 부가소절 술어는 이동 할 수 없다. 이는 동사와 WH-어구 술어 사이에 의미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⁸⁾ 의미역상 독립된 부가술어는 밀접한 의미적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술관계와 부가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Williams(1983)는 술어가 동사에 의해 의미선택 되는 보어 내에 위치하여 주술관계를 형성하는 보문소절과 술어가 동사에 의해 의미선택 되는 보어의 밖에 위치하여 주술관계를 형성하는 부가소절을 동일한 통사구조로 분석한다.

주술관계로의 부가소절 분석은 (64)의 의미역기준에 의하여 설득력을

7) (61)에서 성분통어는 (i b)의 성분 하위인접조건(C-Subjacency Condition)을 근거로 하여 (i a)와 같이 정의한다.

(i) a. α가 β를 성분통어하려면, α를 관할하는 모든 분지교점이 β를 관할해야 한다.
 b. 어떤 술어는 그것의 주어나 선행사에 성분 하위인접해야 한다. 즉 β가 α에 성분 하위인접 하려면, α가 β를 관할하지 않는 최소한 하나의 분지 교점에 의해 관할되어야 한다.

8) Chomsky(1986b)는 보문소절에서 주절동사와 소절술어 WH-어구 또는 그 흔적 사이에 고유지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흔적과 어휘범주간에 선행사 지배 이외에 어휘지배, 즉 의미역 관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분석은 Schein(1982)의 수정된 의미명기준에 근거한 Rothstein(1983)의 부가술어 분석과 Chomsky(1986b)의 연쇄속성에 따른 의미역기준에 근거한 부가술어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의미역상 독립된 부가술어는 (64)와 같이 묘사술어, 결과술어, 상황술어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64) a. John ate the meat [AP raw]-묘사술어
- b. John painted the house [AP red]-결과술어
- c. John met Mary [AP drunk]-상황술어

이들 부가술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그들이 동사에 의해 의미선택 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어휘핵에 의해 의미역이 할당된 논항과 주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동사나 논항주어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의미적 속성에 따라 묘사술어, 결과술어 그리고 상황술어로 분류한다.

(64a)에서 'raw'는 묘사술어로서 동사에 의해 지시된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동사의 직접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적 속성을 갖는다. (64b)에서 'red'는 결과술어로서 동사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경우에만 동사의 직접목적어를 서술할 수 있다. 또한 결과술어는 동사와 밀접한 의미적 관계를 가지므로 동사의 보어와 같이 그 동사의 의미적 속성에 의해 선택된다. (64b)는 다음 (65)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65) John painted the house to redness.
- (John painted the house to a state of being red.)

Chomsky(1986b)에 따르면 결과술어는 묘사술어나 상황술어와는 달리 동사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WH-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66) a. How red did John painted the house?
- b. *How raw did John eat the meat?
- c. *How angry did John leave room?

Simpson(1982)은 결과술어는 한 문장 내에 단 하나만 나타날 수 있지만 묘사술어는 둘 이상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67) a. *John washed the clothes clean white.
 b. They ate the meat raw, tender.

한편, 결과술어와 묘사술어는 한 문장 내에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결과술어는 묘사술어를 선행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 (68) a. We hammered the metal flat hot.
 b. *We hammered the metal hot flat.

(64c)에서 'drunk'는 상황술어로서 역시 묘사술어와 함께 한 문장 안에 나타날 수 있으나, 묘사술어가 상황술어를 선행해야 한다.

- (69) a. John ate the meat raw drunk.
 b. *John ate the meat drunk raw.

Chomsky(1981)와 Stowell(1981, 1983)의 구성성분적분석에 의하면 모든 부가술어가 PRO주어와 하나의 구성성분을 형성하므로, 세 유형의 부가술어를 포함하는 (69a, b, c)의 통사구조는 Chomsky(1981)에 의해서는 (70)과 같이 분석하고, Stowell(1983)에 의하면 (71)로 각각 분석된다.

- (70) a. John INFL [_{VP} ate the meat][_S PRO raw].
 b. John INFL [_{VP} painted the house][_S PRO red].
 c. John INFL [_{VP} met Mary][_S PRO drunk].

- (71) a. John INFL [_{VP} ate the meat][_{AP} PRO raw].
 b. John INFL [_{VP} painted the house][_{AP} PRO red].
 c. John INFL [_{VP} met Mary][_{AP} PRO drunk].

(64a, b, c)에서처럼 PRO주어를 가정하지 않으면 Chomsky(1981)의 의미역기준을 위반하게 되나 (70), (71)에서처럼 PRO주어를 가정하면 부가술어 'raw', 'red', 'drunk'는 PRO주어와 주술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논항 'the meat', 'the house', 'John'은 각각 동사 'eat', 'paint', VP에 의해 하나의 의미역을 할당받게 되어 Chomsky(1981)의 의미역기준을 준수하는 이점이 있다.

부가소절의 구성성분적 분석은 의미역기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세 유형의 부가술어를 포함하는 문장에 대한 통사적 기술상의 문제점, 의미 해석상의 문제점, 핵계층이론상의 문제점 등을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논항 위치에 근거한 의미역상 독립된 술어분포의 일반화에 의하여 세 유형의 부가술어는 관련된 논항주어와 단순히 주술관계를 형성하는 독립된 부가어로 형성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5. 결론

전통문법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두 관계가 의미적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고 영어에서는 주어 구실을 하는 목적어와 서술어 구실을 하는 목적보어가 연결사의 도움 없이 절을 형성한다고 해서 '소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절이란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져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는 구조화된 연쇄'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왔는데 이를 GB의 틀 안에서 절을 시제와 일치형태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한정절과 비한정절로 구분하여 그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소절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소절이 파생되기까지의 정형절, 예외절, 소절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소절을 보문소절과 부가소절로 구분하여 특징을 논의하였다. 보문소절은 술어가 주절에 의해 하위 범주화되고 주절동사의 보어내에 존재함으로써 의미역상 독립하지 않고 부가소절은 주절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 않고 주절동사의 보어 내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의미역상 독립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소절을 구성성분적 분석과 비구성성분적 분석의 주술관계 이론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주어개념에서 명사구만이 구조적 주어를 소유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S와 명사구를 비롯한 모든 통사범주가 구조적으로 주어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구성성분적분석에는 Chomsky(1981)가 제안한 S범주분석이 있고, Lightfoot(1984, 1987), Stowell(1981, 1983) 등이 있다. 이에 반해서 Williams(1980, 1983)의 주술관계에서는 주어를 술어의 상대적 개념, 즉, 비구성성분적분석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영어에서 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보다 다소 복잡하면서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과정에서 경제성을 띠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명윤. (1998). *츄스키 언어학 사전*. 서울 : 한신문화사.
- 김기찬. (1998). 영어와 한국어의 소절 구문의 분석, *언어과학연구*, 15, 53-74.
- 김영현. (1992a). *영어의 소절구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분주. (1994). *영어의 소절구조분석*,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분주. (1999). 소절의 통사적 범주분석, *현대문법연구*, 16, .181-198
- 박분주. (1999). *영어와 한국어의 소절구조*,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동휘. (1989). 영어의 보문소절과 부가소절. *지배-결속 이론의 기초*. 서울: 신아사.
- 정정승, 박분주. (1996). 소절의 유형과 범주. *어문연구* 20.
- Aoun, J. (1985). *A Grammar of Anaphor*. MIT Press: Cambridge, Mass.
- Bresnan, J. (1979). *Theory of Complementation in English Syntax*.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Ed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 Jespersen. (1969). *Analytic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and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Chomsky, N. (1985).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86).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Chomsky, N. (1995). *The Origin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rme, G. O. (1931). *Syntax*. D.C. Heath and Company: Boston.
- Hornstein, N. and D. Lightfoot. (1984). *Rethinking Predication*. Ms. University of Maryland.
- Hornstein, N. and D. Lightfoot. (1987). Predication and PRO, *Language*, 63.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al. *CLS 21*. 210-220.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1986). *Small Children's Small Clauses*. Ms., University Press.
- Radford, A. (1988). *The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stein, S.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 Stowell, T. (1982). The Tense of Infinitives. *Linguistic Inquiry* 13, 561-570.
- Stowell, T. (1983). Subjects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285-312.
- Stowell, T. (1985). *Null Operators and the Theory of Proper Government*. Ms., UCLA.
- Stowell, T. (1987). *Small Clause Restructuring*. Ms., UCLA.
- Williams, E. (1975). *Small Clauses in Nominals*. Ms., University of Mass., Boston.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 Williams, E. (1983). Against Small Clauses. *Linguistic Inquiry* 14.

양용준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1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4)754-2720, 724-7134

이메일: usyang@edunet4u.net

Received: 10 May, 2004

Revised: 26 May, 2004

Accepted: 5 Jun, 2004